

영 브릭스톤 흑인사회에 '불심' 고조

〈The Voice〉

“흑인 개종 사례 늘고 있어”

영국 런던의 브릭스톤(Brixton) 지역에서 흑인 불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The Voice〉지는 “흑인 밀집 지역인 브릭스톤에서 흑인들의 개종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흑인 불자들의 신행체인 ‘브릭스톤 불교센터(Brixton Buddhist Center)’가 자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년 전까지만 해도 브릭스톤 흑인 사회의 주류 종교는 기독교였다. 그런데 브릭스톤 불교센터의 흑인 대상의 리더십 프로그램이 소개되면서, 흑인들의 마음에 불심을 심어주는 단초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리더십 프로그램은 브릭스톤의 사회적 약자인 흑인들이 인종·문화·종교의 벽을 넘어서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한 브릭스톤 불교센터의 마크 케니(Mark Carney) 법사는 “브릭스톤에는 백인 외에도 다양한 유색인종이 밀집해 있으며, 각 인종 간의 생활 격차가 크다”며 “이중에서 가장 낙후된 생활을 하고 있는 흑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프로그램의 초점을 맞추었다”고 설명했다.

〈The Voice〉지에 따르면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흑인들은 일상적인 문제부터 신앙적인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의 토론을 하면서 자긍심을 키우고, 나아가 브릭스톤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꾀하기 위한 방법까지도 고민하는 한편 바자회나 문화 공연 등을 공동 기획·진행하며, 지역 사회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는 데에도 노력하고 있다.



브릭스톤 불교센터의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흑인 불자들은 주중 프로그램 외에도 자발적으로 주말 워크숍을 진행, 신심을 다지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명상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자료사진)

‘브릭스톤 불교센터 리더십 프로그램’

흑인 사회 변화의 플랫폼 제공

소통 화해하며...사회적 공헌에 관심

고 있다.

“브릭스톤 사회에서 인종 갈등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유색인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라고 지적한 안수 제인(Anshu Jain · 48) 씨는 “리더십 과정을 밟으며 서로를 용서하게 되었다”며 “이제는 보다 많은 흑인들이 브릭스톤 불교센터에 동참하길 희망하며 거리 포교도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불교의 인과법칙을 알게 되면서 주변과의 관계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헬렌 브링(Helen Bring · 36) 씨는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내 앞에 세

로운 삶이 펼쳐지는 듯한 생각이 들었고, 삶의 의지도 강해졌다”고 말했다.

“난독증을 앓으며 소외된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다”는 니콜라스 딘(Nicholas Dinn · 18) 군은 “불교센터에서 친구를 사귀며 자신감을 되찾고 있다”며 “특히 찬불가를 합창하며 난독증 증세를 완화할 수 있었는데, 다시 학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The Voice〉지는 “브릭스톤 불교센터의 리더십 프로젝트는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흑인들이 대화를 통해 서로의 신뢰를 쌓는 한편 자신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일종의 종교적 플랫폼을 제공했다는 점이 프로그램의 성공의 단초가 될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또한 “따라서 브릭스톤 불교센터의 리더십 프로그램은 흑인의 잠재력을 실현하는데 ‘종교적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진정한 변화를 이끄는 데 단초가 되고 있다”고 〈The Voice〉지는 덧붙였다.

“리더십 프로그램에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구성을 일신할 계획”이라고 밝힌 마크 케니 법사는 “이를 통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흑인 청소년들이 자신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흑인의 불교 입문은 비단 영국 브릭스톤에 국한되지 않았다”고 전제한 〈The Voice〉지는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가나, 브라질, 트리니다드, 바베이도스와 등지에서도 브릭스톤과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경향은 티나 터너, 허비 행콕, 맥시 재즈 등과 같이 세계적인 흑인 스타들이 불교에 개종하면서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사바나 불교사원 ‘유령 축제’

조지아 주에서 처음 선보일 베트남 불교명절

미국 조지아 주에서 베트남 불교의 축제 중에 하나인 유령 축제(Vu lan, 이하 ‘부란’)가 처음 열린다고 〈WJCL News〉지가 7월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지아 주의 베트남 불교계 사바나(Savannah) 사원에서 오는 8월 10일 열리는 부란은 매년 음력 7월 보름에 열리는 불교축제로 ‘죽은 영혼들이 집을 찾는 날’이다.

사바나 사원의 통 랍(Tong lab) 스님은 “부란 때면 사원에서 음식을 마련하고 영혼을 달래는 의식을 마련한다”고 설명한 뒤, “미국에서 처음 준비하는 이번 부란 행사에는 ‘부모 공경’이라는 주제도 함께 진행해, 조지아 주의 베트남 공동체의 결속력을 더욱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사바나 불교사원의 재가불자들이 조지아 주에서 처음 선보일 부란 축제 준비에 한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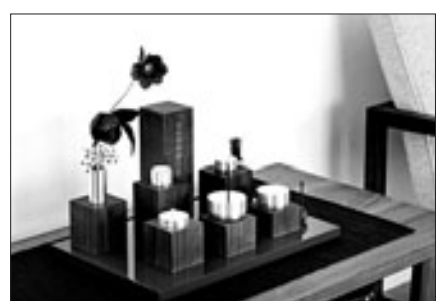
“현대적 디자인의 간편한 불단 어때요?”

일본 건축회사, 불단 개발

사용자의 용도에 맞게 쉽게 재구성할 수 있는 간편한 불단이 개발돼 화제다.

일본의 건축회사인 ‘토라푸 아키텍츠(Torafu Architects)’는 최소한의 요소만으로 개인의 취향과 용도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는 불단을 개발했다.

불단은 위패, 제기, 다기, 옥수기, 꽃병, 향로, 촛대, 징 등 7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집안의 가구배치를 바꾸듯 쉽게 불단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높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층층으로 배치할 수 있다. 이 불단은 두나무와 너도밤나무



일본 건축회사가 개발한 불단

원목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기존 불단과 달리 다소 불교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다. 이나은 기자

중국, 티베트인 거주지서 3살 된 ‘환생고승’ 즉위식



2009년 입적한 제3대 페룰 린포체(왼쪽)와 환생했다는 제4대 페룰 린포체(오른쪽)

환생을 믿는 중국 티베트인 거주지역에 3살 된 ‘환생 고승’이 거대 중파의 중정에 취임했다.

지난 7월 31일(현지시간) 중국 티베트족

집단 거주지역인 쓰촨성 간쑤 티베트족 자치주 바이위현에 있는 바이위 사원은 유례 없는 인파로 붐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2009년 78세를 일기로 입적한 제3대 페룰 린포체(티베트 불교에서 전생에 수행자의 삶을 살다가 죽은 후 인간의 몸으로 환생한 사람)가 환생했다는 3살짜리 양식의 제4대 페룰 린포체의 중정 즉위식에 참가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2만여 명의 신도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바이위 사원은 티베트 불교 4대 종파의 하나인 링마파의 본사이며, 이 종파는 인도, 네팔, 대만, 홍콩, 미국, 캐나다 등 세계 각지에 분원을 두고 있다.

인도에서 입적 당시 고향에서 환생하겠

다는 페룰 린포체의 유언을 신봉한 신자들은 작년 티베트 산남 지구 자치현에서 ‘환생’ 한 두살짜리 페룰 린포체를 찾았다.

하지만, 링마파는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후 처음 설법을 했다는 초전 법륜일인 티베트력으로 6월 4일 즉위식을 거행했다. 사찰 측은 신도들의 축하 행렬이 이어지자 해외에서 온 지도자급 귀빈만을 즉위식에 참가시키고 절 밖에 대형 TV 스크린을 설치해 즉위식 장면을 생중계했다.

제4대 페룰 린포체는 7월 28일 티베트 전통 복장을 한 100여 명의 기마병의 호위 아래 수 백대의 오토바이와 승용차들이 뒤따르는 가운데 바이위사에 도착했다.

페룰 린포체의 즉위식에 이어 사원 안팎에선 각종 축하 행사가 벌어졌으나 중국 당

국은 제지하지 않았다고 RFA는 전했다.

당국은 또 즉위식을 전후해 이례적으로 중국판 카카오톡 ‘웨이신(위챗)’에 대한 단속을 완화해 즉위식에 대해 신도들의 댓글과 사진이 넘쳐났다.

중국 당국은 인도에 망명 중인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견제하기 위해 지난 1990년 기알첸 노르부(24)를 티베트 불교의 2인자인 11대 판첸 라마에 내세우고 2010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으로 추대하기도 했다.

티베트 불교에서 달라이 라마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여겨지며 판첸 라마는 아미타불의 화신으로 달라이 라마에 이은 서열 두 번째의 정신적 지도자이다.

이나은 기자 oasis1963@hyunbul.com

사사키 스님 입적...세수 107세

미국에 선불교 처음 알려...LA 선불교 기반 다져

미국에 선불교를 처음 알렸던 조슈 사사키(Joshu Sasaki) 스님이 지난 7월 27일 세수 107세로 입적했다고 〈Los Angeles Times〉지가 보도했다.

1962년 도미, Mount Baldy Zen Center를 창립한 뒤 50여 년 동안 LA 지역에서 선불교의 가르침을 전해 왔던 조슈 사사키 스님은 LA 시더스 시나이(Cedars-Sinai) 병원에서 급성 패혈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조슈 사사키(Joshu Sasaki) 스님의 생전 모습

오종욱 편집위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얇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기기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썩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썩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차서냉
*오심건,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현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심건조기,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